

Domus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al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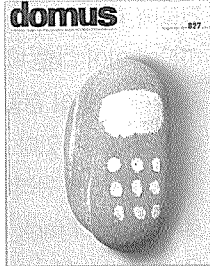
a+u

건축문화

Domus

2000년 6월호

건축 작품으로는 새로운 재료와 공법을 통해 화려한 건축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 J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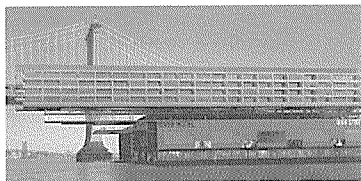


Nouvel의 두 신작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일반 디자인 코너에서는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도 선보인 다양한 디자인 제품들을 다루었다. 예술 분야에서는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소식이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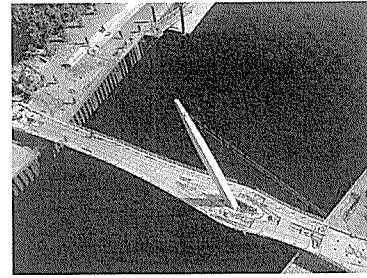
이번 달의 건축란은 새로운 의미 전달 수단으로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Jean Nouvel의 에세이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Jean Nouvel의 미국 뉴욕 Main Street Pier 호텔



강변을 향해 돌출해 있는 이 호텔은 맨해튼 전경에 개방되어 있어 도시의 아름다움에 한껏 취할 수 있는 시점을 제공한다. 두 개의 주요 교량 사이에 위치해 있어 이들을 지나가는 배의 시점에서 조명하고 있는 등 뉴욕의 도시적 특성들을 모두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도시에 대한 하나의 '자기 도취적인'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Nouvel의 프랑스 파리 Quai Branly 예술·문명 박물관
반면 Nouvel의 또다른 최근 프로젝트



인 이 박물관은 강변의 숲지역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건축물의 물질성 자체를 자연 속으로 녹아들어가게 함으로써 시적인 특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전세계 다양한 문명의 산물들을 전시하는 이 박물관이 서구적인 특성을 부각시키지 않게 하고 있다.

그 외에 ▶'건축'의 미학적 기준에 부합되는 스위스와 독일의 최신 교량 설계, ▶Norman Foster의 독일 함부르크 멀티미디어 센터, ▶Bertram Benemann의 독일 하노버 엑스포 지하철 역사, ▶Philippe Chaix, Jean-Paul Morel의 프랑스 Amiens Licorne 축구장 등이 소개되어 있다.

■ 디자인

▶밀라노 2000 가구 쇼

매해 반복되는 가구 쇼에 변화를 주기 위해 올해에는 주최측(Cosmit)과 시의회가 공동으로 "방과 비밀(Stanze e Segreti)"이라는 설치 미술전을 함께 열었다. Robert Wilson, Peter Greenaway, Yoko Ono 등 다방면의 예술가들이 참가한 이 전시회는 디자인 제품을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예술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랜드스케이프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고압전선 철탑 디자인, ▶최신 명함 디자인에 대한 소개가 게재되어 있다.

■ 미술

▶3회를 맞은 광주 비엔날레는 이제 세계적인 아트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지난 전시회들에 비해 더욱 균형 잡힌 프로그램 속에서 아시

아적인 특성이 부각되었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되었거나 행해진 예술 작품들이 사진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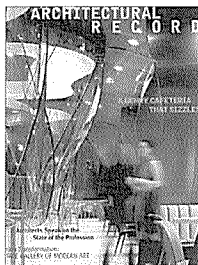
■ 기타

▶2000년 3월호에 실린 Peter Eisenman의 글에 대한 Vittorio Gregotti의 반론, ▶철근 콘크리트로 다양한 구조적 실험을 했던 Ricardo Morandi의 이탈리아 작품 소개, ▶최근 저서들에 대한 소개 및 논평이 게재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cord

2000년 6월호

Herzog & de Meuron의 Tate Gallery of Modern Art, Frank Gehry의 새로운 카페인 테리어 등이 최근 작품으로 다루어져 있으며, 최신 사무실 건축작품으로 4개의 사례가 조사되어 있다. 아울러 미국의 건축 실무계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자체적인 진단이 제시되어 있다.



■ 최신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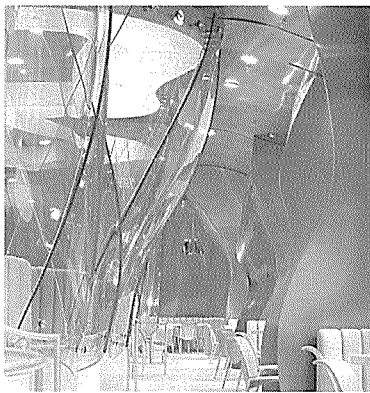
▶Herzog & de Meuron의 영국 런던 Tate Gallery of Modern Art



국제현상설계로 당선안이 결정되었던 영국 런던 Tate Gallery of Modern Art이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발전

소 건물을 개축하여 만들어진 이 박물관은 기존의 육중한 건물에 개구부를 마련하여 주위와 대화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대한 발광체를 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부각된다. 본 건물에 대한 William J.R. Curtis의 비평에 이어 다른 박물관 공간과의 비교를 통해 본 이 건물의 특성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밖에 ▶곡선 유리외 티타늄 등 재료로 만들어진 Frank Gehry의 미국 뉴욕 Condé Nast Cafeteria, ▶Rafael Moneo의 미국 휴스턴 Museum of Fine Arts, ▶Herbert Lewis Kruse Blunck Architecture의 Des Moines Sticks 본사 및 스튜디오가 소개되어 있다.



프랭크게리의 Condé Nast Cafeteria

■ 건물타입별 근황 소개 - 사무실 건축

경제 호황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건물 자체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고 있다. 고전 양식이 주로 선호되는 가운데, 몇 개의 획기적인 사무실 건축이 이러한 경향에 도전장을 던졌다. 최근의 새로운 시도들로 ▶Schnebli Ammann Menz Architects의 미국 뉴욕 Armonk Swiss Re 본사, ▶Valerio Dewalt Train의 미국 위스콘신 Madison Block 89, ▶Sauerbruch Hutton Architects의 독일 베를린 GSW 본사, ▶PFAU Architects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475 Brannan Street 건물의 사례가 게재되어 있다.

■ 미국의 최신 도시 정책

최근 미국에 젊은 시장들이 취임하면서 기존의 빨치산식 행정에서 벗어나 실리를 추구하며 디자인을 중시하는 새로운 도시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각 도시의 문화적, 역사적, 경제적 특성에 맞게 새로운 개발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 예로 뉴욕 Rochester, Ohio Dayton, Tulsa 등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 건축계의 현황 진단

7년간 이어진 건축계의 호황, CAD 사용의 일반화, 그린 건축의 출현 등 최근 건축계의 동향에 대해 50명의 건축가, 건축주, 건축교육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호황을 맞아 일이 많았던 만큼 재충전의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일자리가 많아졌지만 고용상 성, 인종의 불균형은 여전히 나타났다. 기술 분야의 발전에 따라 건축가가 다루어야 할 분야도 확대되었으나, 정작 건설 분야에서는 새로운 공법들이 그다지 많이 도입되지 못했다. 그 밖에 설계 사무소의 수익률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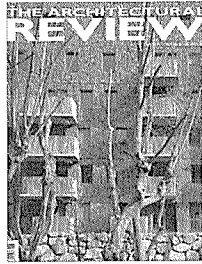
■ 기타

▶2000년 올림픽을 대비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의 새로운 경기 시설, ▶많은 지사를 가진 설계 사무소가 일관된 정체성과 스타일을 지켜나가는 방법, ▶건축가의 윤리에 대한 Stanley Tigerman과의 인터뷰, ▶공공장소 계단 설계의 주의 사항, ▶홈페이지, 브로셔 등 건축 마케팅의 새로운 도구들, ▶건축 컴퓨터 그래픽 연구의 선두 그룹 중 하나인 미국 뉴욕 Cornell University in Ithaca의 PGG가 개발한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기법들, ▶Ito, Grimshaw 등의 건축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음악 CD를 발간하고 있는 브라질 영화 작가 Iara Lee와의 인터뷰 등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al Review

2000년 5월호

건축에서 재료의 비중과 그 다양한 실험들이 주제로 다루어져 있으며, Rafael Moneo, Zvi Hecker 등의 작품이 그 실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론 분야에서는 건축의 촉각적 특성에 대한 Pallasmaa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 건축과 물성

건축과 재료의 관계는 복합적이며 매우 오래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기술적인 진보나 혁신으로 이뤄진 것이라 할지라도 재료는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감지하는가에 의해 그 특성이 좌우된다. 새로운 재료를 실험한, 또는 기존의 재료를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한 예들을 살펴보았다.

▶ Rafael Moneo의 스페인 San Sebastian, 콘서트홀과 컨퍼런스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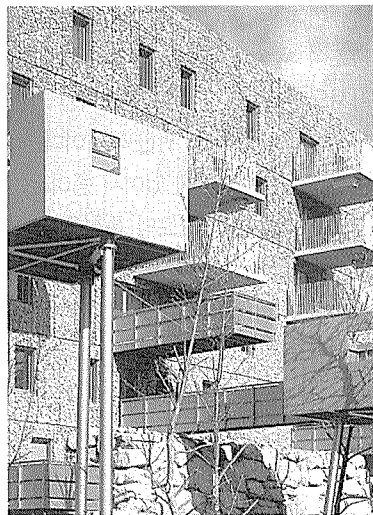


건물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조작된다. 지형학적으로 이 건물은 강을 따라 그것의 위치를 잡은 원시형태의 두 개의 돌로 해석될 수 있다. 반투명한 백색

박스는 내부에 오디오리움 볼룸을 가지고 있으며 두 개의 썬데기 사이에 포이어 스페이스가 자리한다. 도시에 향하는 면은 기단부에 샴,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있으며 해변과 강어귀에는 두 개의 시민광장과 그것에 이르는 램프로 대응하고 있다. 'in-betweenness'라는 이 건물의 주된 테마는 주된 매스의 이중 외피에서도 읽혀질 수 있다. 바깥쪽 레이어는 안으로 굴곡진 유리패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의 유리벽과 겹쳐져서 물결무늬를 만들어 낸다.

▶ Zvi Hecker의 이스라엘 텔아비브, Veterans' Memorial Center
Tel Aviv 대학의 외곽에 위치한 이 건물은 주변의 오브제처럼 서있는 캠퍼스 건물들과는 대조적으로 랜드스케이프와 벽, 공간의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건물군의 내부에는 중정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식수들을 그대로 보존하여 주변의 건물들이 둘러싸도록 하였다. 외장재료의 선택은 외벽이 세워졌을 때 현장에서 직접 선택하여 이 지역에서 나는 라임스톤인 kurkar가 중정측과 가로측에 각각 다른 패턴으로 마감되었다.

▶ Eduard Francois의 프랑스 Montpellier 집합주택



Herzog & de Meuron이 Napa Valley Winery에서 시도하였던 것은

그레인이 다른 돌들을 철망안에 채워 공기와 빛을 돌틈으로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반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콘크리트 패널 위에 돌이 덧붙여져서 장식적인 요소가 강조되었다. 건물의 입면은 나무를 엮어 울타리를 만든 것, 오두막 스타일, 합판으로 만든 것 등 다양한 타입의 발코니로 구성된다.

그밖의 예로 ▶ Ahrends Button & Koralex의 모스크바 주재 영국 대사관, ▶ Caruso St. John Architects의 Walsall Art Gallery, ▶ Meilli & Peter의 스위스, Biel Bienne 공업학교, ▶ Ernani Freire Arquitetos Associados의 브라질 리오 드 자네이로 문화 회관, ▶ Wendell Burnette의 미국 아리조나 Scottsdale 디자인 스튜디오, ▶ Scott Tallon Walker Architects의 아일랜드 County Wexford Oulart Hill 기념관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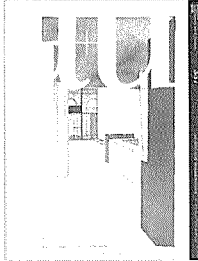
■ 인테리어

▶ 유물들의 전시와 어우러진 Antonello Boschi Architetto의 이탈리아 Piombino 고고학 박물관, ▶ 가벼움이 강조된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Stanton Williams의 영국 런던 Conduit Shop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 미국 맨해튼의 경직된 도시 구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Christian de Portzamparc의 LVMH 빌딩, ▶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DAM에서 개최된 20세기 독일 건축전, ▶ 건축의 섬세한 촉각적 특성에 대한 Juhani Pallasmaa의 논문, ▶ John Pawson의 런던 주택 작품 등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이번 호는 특집으로 ARO (Architectural Research Office)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ARO는 젊은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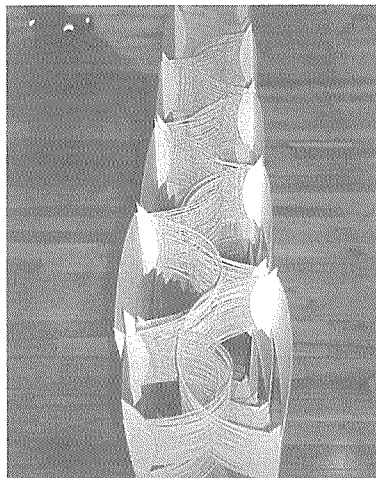
국의 두 건축가인 1962년 생의 아담 야린스키(Adam Yarinsky)와 1963년 생 스테판 카셀(Stephen Cassell)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는 사무소이다. 디테일 하나 하나의 개발에 몰두하는 장인정신이 돋보이는 사무실로서, 프로젝트의 규모는 작아도 매번 새로운 실험정신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 특집: ARO (Architectural Research Office)

▶ARO의 작품세계 - 아키텍처 리서치 오피스(ARO)를 방문하면 마치 어딘가의 연구소를 방문한 듯한 분위기가 사람을 휘어잡는다. 컴퓨터부문에서는 여러 겹으로 겹쳐진 복잡한 그리드나 스트럭처를 앞에 두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모형제작실에서는 T셔츠바람의 건축가들이 모형들에 둘러싸여 먼지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ARO의 정신은 이 두 개의 양극단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자이기도 한 아담 야린스키와 스테판 카셀은 본직인 연구를 수행해나가면서 건축가로서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이 탐구하는 것은 시공상의 디테일이나 실험적 구조체, 벽, 불박이 가구나 설비, 천장의 지지구조 등 순수한 이론과 기업주도의 문화, 이 두 가지로 양분되어버린 나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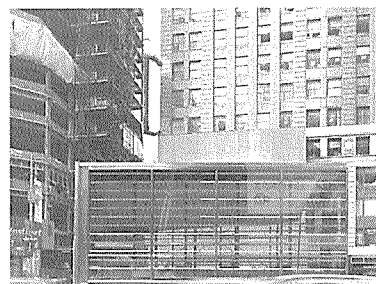
서는 행해지기 힘든 테마이다. 네온 불빛을 발산하는 타임 스퀘어의 미군모병사무소(美軍募兵事務所) 건물과 아트 갤러리에 전시된 얇은 반투명 페이퍼 월(Paper Wall)과는 어떠한 접점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층(層)진 연약한 구조물에 빛을 투과한다는 단순한 형식을 갖는 동일한 연구 중에서 나타난 결과물들이다. 그것이 가로(街路)이든 특정한 소재이든 간에 거기에는 본연의 색깔 속에 리얼리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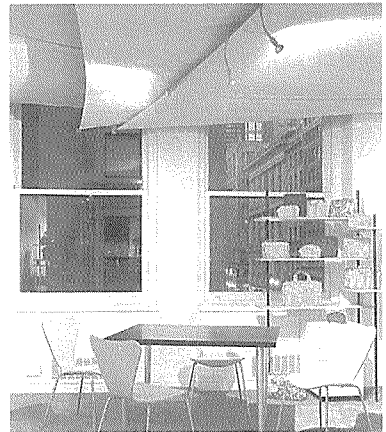
Artists Space

페이퍼 월(Paper Wall), 아티스트스 스페이스(Artists Space) - 이 작품은 뉴욕의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으로서 컴퓨터에 의한 CAD/CAM 시스템이 창조적 사고의 과정에 적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작품이다. 하나의 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종이라는 재료를 이용하고 재료의 특성을 연구한 후 컴퓨터에서 디자인 한 결과물을 레이저 커터를 이용해 바로 제작하는



미군모병사무소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타임즈 스퀘어의 미군모병사무소 - 차로의 한 가운데 삼처럼 고립된 보행자를 위한 좁고 긴 공간에 단층으로 구성된 미군모병사무소가 계획되었다. 건물은 4명의 사무원과 화장실, 그리고 좁은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작은 건물이 나타내고 있는 미군모병소로서의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다. 3면을 유리로 개방한 후 한 쪽 유리면에 미국 성조기의 모양과 색채를 띠는 네온사인을 부착하였다. 네온사인은 성조기의 모양을 그대로 따르는 않으면서 상징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온사인으로 넘쳐나는 변화가거리의 컨텍스트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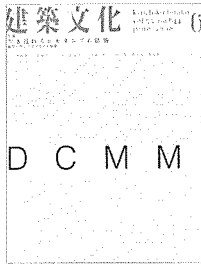
트리나 쇼룸, 오피스

부응하고 있다. 트리나 쇼룸과 오피스(Trina Showroom and Offices)- 오픈 플랜으로 구성된 쇼룸과 사무실의 구획 및 천장의 계획을 맡은 작품이다. 특히 신경 쓴 것은 천장의 디자인으로, 조각난 천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된 천들의 부착 순서가 치밀하게 계획되었으며, 팽팽히 당겨진 천들에 의해 자연스러운 곡선이 드러나게 하였다.

건축문화

2000년 6월호

이번호의 특징은 'DOCO-MOMO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이다. DOCOMOMO는 이미 그 기능적 수명을 다한 보전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들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보전시키려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문화 유산으로서의 건축물의 보전에 대한 여러 움직임들과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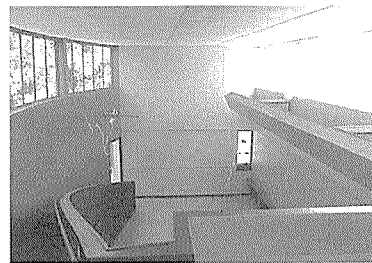


■ 특집 - DOCOMOMO (Documentation and Conservation of buildings, sites and neighborhoods of the Modern Movement)

DOCOMOMO는 모더니즘 건축의 조사, 기록, 보전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이번 특집은 최근 DOCOMOMO의 요청을 받은 일본 모더니즘 건축 20선을 계기로 모더니즘건축의 보전을 둘러싼 일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모더니즘 건축의 보전과 현재의 건축
모더니즘 건축은 현재의 건축의 뿌리이다.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모더니즘 건축이 만들어낸 빌딩 타입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 환경은 좀더 현대의 생활에 적합한 것들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모더니즘 건축의 명작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인위적인 보전의 손길이 필요하

게 된 것이다. 이렇게 위기를 맞은 건축에 대한 보전을 하는 것은 당장의 위급한 상황의 대처이기도 한 동시에 현재의 건축도 수십년 후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된다.



코르뷔제의 작품들

▶기사, 좌담회, 논문

건축문화 6월호의 특집은 DOCOMOMO의 활동을 일본에선 처음으로 비학술지에서 다룬 것이다. 이 특집에 포함된 기사들과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잘려나간 시간-모더니즘 건축에 매료된 사진가들'이란 제목으로 모더니즘 건축을 사진에 담았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개된 사진가들은 平井廣行, 吉村行雄, 山田新治郎이며, 코르뷔제, 쥘세페 테라니 등 근대건축가의 작품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좌담회로는 '우리들의 모더니즘 건축'

이라는 주제로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 5명이 모여 좌담회를 가졌다. 이 좌담회에서는 젊은 건축가들이 모더니즘 건축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를 통해 생각하는 앞으로의 건축가상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논문들로는 모더니즘 건축 보전의 의의와 세계적 동향 그리고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것들로서, DOCOMOMO 운동의 의의와 근대건축 보전에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일본에서 이러한 운동이 갖게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이나가키 에이조우(稲垣榮三)의 '모더니즘 건축의 보전-DOCOMOMO운동과 일본', 세계각국의 건축문화 보전활동을 정리하고, 그 올바른 방법에 대해 모색한 타하라 유키오(田原幸夫)의 '유네스코·이코모스, 그리고 도코모모-모더니즘과 보전을 생각하기 위한 서론', 니카하라 마리(中原 まり)의 '建築史料再見-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사료보전'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유럽 모더니즘건축 보전운동사례'에서 네덜란드와 영국, 프랑스의 사례를 조사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각각 보전에 있어서의 합리성, 환경 친화적 보전원칙, 보전 의식의 생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일본 DOCOMOMO 20選

DOCOMOMO에 의해 보전 가치가 있는 모더니즘 건축물로 선정된 일본의 건축물 20작품에 대한 소개이다. 선정된 작품들로는 도준카이 아파트, 스미모토 빌딩, 聽竹居, 코스게 형무소, 동경중앙우편국, 카메키 츠치우라 하우스, 케이오 키즈쿠 학교, 우베 시민회관, 八勝館, 등이다. ㉠



도준카이의 아파트